

# 재소자 부랑자, 불교로 본성 보다

세인트루이스, 풀리처 재단 사회공헌프로그램 주목  
불교연극·전시·교육... 깨달음... 탈옥망

풀리처 재단(Pulitzer Foundation)의 불교를 접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화제다.

세인트루이스 온라인 매체 stltoday(www.stltoday.com, 이하 '세인트루이스투데이')가 "풀리처 재단의 'Staging Reflections of the Buddha(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영상)' 프로그램이 일반인은 물론 인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월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5개월 동안 불교를 주제로 기획된 연극과 전시를 관람하는 한편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체험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개인·사회적 욕망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알게 하고,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고 심성을 다스리는 시간을 주고 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투데이는 케이스 프리먼(Keith Freeman)의 사례에 주목해, "인근 교도 및 보호 시설에 수감된 재소자와 부랑자들 중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중인 이들이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진실한 삶과 탐욕스런 욕망의 전쟁터와 같았다"고 설명한 프리먼은 "나는 그 과정을 밟으며 매년 전쟁터에서 치열한 격전을 치러야 했고,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허약한 홀어머니 밑에서 4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란 프리먼은 15세에 학교를 중퇴한 후, 길거리 문화에 빠져 살았다. 그는 17세에 교도소에 처음 수감된 후, 마약판매 혐의로 세인트루이스교도소에 4번째로 수감된 지난해 처음으로 풀리처 재단의 프로그램에 지원, 과정을 밟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Staging Old Masters(위대한 예술가를 담은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였는데, 틴토레토(Tintoretto), 비뇽(C. Vignon), 바카로(D. A. Vaccaro) 등의 작품을 주제로 진행되어 큰 반향



전시된 불교 미술품을 관람하고 있는 재소자들

을 불러일으켰다. 3년 후 풀리처 재단은 이 프로그램의 사회적 공헌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불교를 대주제로 삼고, 프로그램 이름도 'Staging Reflections of the Buddha'로 바꾸어 진행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일반인에서 재소자 부랑자까지로 확대했다.

에밀리 피로(Emily Piro, 풀리처 재단 프로그램 담당자)는 "스테이징(Staging, 영상)은 원래 영상을 통해 예술과 관객의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는다는 예술계의 상용어라며 "이 프로그램이 불교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이상이란 무엇인가' '그 이상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욕망이란 무엇인가' 등이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상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등 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인 크리스토퍼 팬(Christopher Fan: 워싱턴 대학 연구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 미얀마, 20여년 만에 불교축제 열린다

미얀마 정부가 20여 년간 금지됐던 불교 축제를 허용했다는 소식이다. AP통신은 지난해 3월 출범한 미얀마 민간정부가 일부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 등 민주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축제는 미얀마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2월 23일 AP통신 보도를 보면 미얀마 옛 수도인 양곤의 불교 성지인 슈웨다곤(Shwedagon) 파고다에서는 전날 불교 신자와 승려 수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축제가 열렸다. 2600여년 전에 건립된 슈웨다곤 파고다는 부처의 머리카락 8개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미얀마 군부는 슈웨다곤 파고다에서 반정부 시위가 잇따라 열리자 1980년대 말부터 슈웨다곤 파고다에서 열리는 불교 축제를 금지했다. 미얀마 민주운동가인 수지(Suu Kyi) 여사는 1988년 슈웨다곤 파고다에서 군부를 비판하는 대중연설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다.

불교학자인 킨 마웅 아예(Khin Maung Aye)는 "군



미얀마 옛 수도 양곤에서 20여년 만에 불교 축제가 열린다.

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불교 축제를 금지해 왔다"면서 "오래전부터 불교 축제가 재개되길 희망해왔다"고 말했다.

불교 축제에 참여한 피인야 운타(Pyinya Wuntha) 스님은 "(불교 축제 허용 등을 보면) 미얀마 정부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인도, '불교 알기' 워크숍·공연 마련

바라트에서 '워크숍'... 델리에서 '락 공연' 세계 유일 불교 락밴드 '달마 범스' 인기

로 사르(Lo Sar, '새해'를 뜻함)를 맞아 인도 주요 도시인 델리와 바라트에서 세계 유일의 불교 락 밴드 그룹인 '달마 범스(Dharma Bums)'의 무대가 마련되고, 인도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린다고 인디아타임스(www.timesofindia.com)와 힌두스탄타임스(www.HindustanTimes.com)가 22일 각각 보도했다.

인디아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바라트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 카시 비다피쓰(Mahatma Gandhi Kashi Vidyapeeth, 이하 'MGKV')가 '인도의 문화적 통합에서의 불교의 역할(Role of Buddhism in the Cultural Intergration of India)'을 주제로 2월 24일부터 7일간 워크숍이 마련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도 예술사에서 불교의 영향'을 주제로 발제하는 고펠 아다프(Gopal Yadav) 교수는 "불교는 인도 예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데 주목, 인도 중세문학에서의 불교의 영향을 추적



'달마 범스'의 공연 무대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라나 시느그(Rana P. B. Singh) 교수(바나라스 힌두대학 지리학), 프리스비쉬 나그(Prithvish Naag) 박사(힌두대학 명예총장), 비카람 시느그(Mahesh Vikram Singh) 교수(MGKV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인도 델리에서는 "세계 유일의 불교 락 밴드인 '달마 범스(Dharma Bums)'의 공연이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다"고 힌두스탄타임스(HindustanTimes)가 보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불교적 윤리관이 현대사회 문제 풀 열쇠"

세계의 불교학자(8)

데미언 키온(Damien Keown)  
런던 골드스미스대 인도종교학과 교수

'불교경제학', '불교복지', '불교사회학' 등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있는 응용불교학이 학문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파괴, 부정부패, 교실폭력 등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불교윤리학'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자가 있다. '불교윤리학' 분야의 권위자 데미언 키온(Damien Keown) 런던 골드스미스대 인도종교학과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불교윤리학은 말 그대로 윤리학에 불교사상을 접목시킨 학문이다. 윤리학은 도덕의 본질·선악의 기준·인간 생활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여기에 불교사상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해 시대에 맞게 불교를 재해석한 학문 영역이다.

1951년 영국에서 출생한 키온 교수는 1992년 옥스퍼드대 초기불교윤리학연구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런던 골드스미스대 대학 교수가 됐고, 현재 빨리문헌학회(PTS: Pāli Text Society) 정회원이자 왕립아시아학회(Royal Asiatic Society) 이사이다.

키온 교수는 연구를 통해 불교사상 안에서 윤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생태·환경·사회문제에 대해 설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키온 교수의 연구 특징은 덕윤리학(virtue ethics)에 기반을 두고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자의 인격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또, 불교는 오늘날 의료윤리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불교적 윤리학이 객관적인 사실로도 주장될 수 있는지 등의 물음에 답해왔다.

서양에서 덕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래된 윤리체계 중 하나이다. 서양 전통의 덕(德; virtue)은 신중(prudence)·정의(justice)·절제(temperance)·용기(fortitude)를 말한다. 키온 교수는 이 네 가지 덕목에서 신중을 받아(般若), 절제를 지계(持戒), 용기를 정진(精進)과 연결시켜 설명했다. 하지만 정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불교용어는 다르마(Dharma) 등이 있으나 정확히 대응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바탕 위에 행위자의 인격과 역할의 중요성을 논할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보다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덕윤리학의 바탕은 권리나 의무, 책임보다 선(善; goodness)을 근본적인 요소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키온 교수의 관심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윤리체계



인 덕윤리학에 불교사상을 적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교의 윤리생태학적 개념을 현시대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다. 즉 불교적 윤리가 낙태, 동물과 환경, 전쟁과 테러리즘 등의 윤리생태학적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복제(therapeutic cloning)'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에서 배아(인간생명)를 인위적으로 창조하고 폐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살생(不殺生) 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키온 교수의 주장은 본인의 저서 <불교윤리학의 본질(The Nature of Buddhist Ethics)>, <불교와 생명윤리학(Buddhism and Bioethics)>, <불교와 낙태(Buddhism and Abortion)> 등에 자세히 담고 있다.

불교 윤리 사상 바탕으로

서양 고대의 윤리체계 덧붙여

"부처님 가르침 불살생에

반하는 줄기세포 치료 반대"

키온 교수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1996년 현대사산재단의 초청으로 '동양전통사상과 불교사상-낙태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의 교류가 시작됐다.

또 2006년 동국대에서 열린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키온 교수는 불교가 매우 윤리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연구가 미진해 일반 사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교는 보시(布施)와 인욕(忍辱), 비해악(non-harming)과 비폭력(non-violence) 등 많은 윤리학적 개념들이 있고, 이러한 윤리는 동물에게도 적용돼 생태학에도 뛰어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키온 교수는 불교의 실천과 사상에 기반을 둔 덕윤리학이 '불교생태윤리학'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연구업적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